

| | | |
|--------------|-----------|-------------------|
| | 제목 |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
| | 발행언어 | 한국어 |
| | 발행처 | 한국구약학회 |
| | 발행일 | 2006. 8. 31. |
| | 저자 | 김영진 |
| | 출판국가 | 대한민국 |
| | 페이지수 | 33-50 |
| ISBN 또는 ISSN | 1229-0521 | |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유다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귀환시기에 있었던 신학사상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원전 6세기 유다왕국의 멸망 직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유다 백성들의 신학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 영향이 어떤 새로운 신학사상을 창출하여 초기 유대교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유다 공동체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 바벨론 포로/귀환 공동체와 팔레스틴에 남아 있던 팔레스틴 공동체로 양분된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학적 노력을 한다. 저자는 안식일 준수, 할례, 금식, 정결법, 족보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이때 등장했다고 한다. 한편 팔레스틴 공동체에서는 저항적 성격의 묵시문학이 등장한다. 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학적 사고를 전면적으로 위협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신학이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보편주의로 바뀌고, 지상의 거주 장소가 사라진 하나님은 천상적 존재로 간주되어 장소 중심의 종교에서 장소를 초월한 시간 중심의 종교로 전환되었으며, 공동체 중심의 정형화된 신앙양태가 개인 중심의 다양화된 신앙양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